12위 인천 vs 11위 수원…리그강등 벼랑 끝 승부

선두 울산, 23일 성남 원정 경기…'결과 중요'

2위 전북, '돌풍의 팀' 상주 상대로 설욕 나서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생존을 놓고 벼랑 끝 강등 승부가 열린다.

K리그1 12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11위 수원 삼성이 22일 오후 5시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7라운드를 치른다.

상주 상무가 이번 시즌 성적과 관계없이 내년 시즌 자동 강등되면서, 12위는 곧바로 2부리그로 추락한다.

최소 11위를 해야 K리그2(2부리그)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전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존왕' 인천은 개막 후 15경기 연속 무승으로 추락하다 지난 16라운드에서 대구FC를 1-0으로 꺾고 마수걸이 승리에 성공했다.

인천 '소방수'로 15라운드부터 지휘봉을 잡은 조성환 감독은 부임 2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하며 침체했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무고사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이번 시즌 인천으로 임대 복귀한 아길라르가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서 팀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인천(승점8)이 기세를 몰아 수원(승점14)전에서 연승을 달린다면 승점 차는 3점으로 줄어 불가능할 것 같던 인천의 잔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반면 수원은 인천에 덜미를 잡힐 경우 강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임생 전 감독 사퇴 후 주승진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고 있지만, 아직 반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상으로 전북 현대전에 결장한 수비수 헨리가 복귀한다는 점이다.

선두 울산 현대는 23일 오후 7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 원정 경기에 나선다.

울산(승점39)은 2위 전북(승점38)에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허용해 이번 성남전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성남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가 부활하면서 2경기 무패(1승1무)를 기록 중이다.

2위 전북은 23일 오후 6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3위 상주와 붙는다.

전북은 지난 10라운드에서 상주에 패한 바 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구스타보, 바로우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강화한 전북은 상주전 복수와 함께 4연승을 달린다는 각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K리그 구단들이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20일 기준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전북 홈구장)과 강릉종합운동장(강원 홈구장)에서만 '유관중'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전북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전 좌석 입장 관중을 25%에서 10%로 축소 운영한다.

뉴시스

이탈리아 비협조…경찰, '호날두 노쇼' 수사 잠정 중단

요청한 자료 올 경우 수사 재개할 예정

지난해 7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일명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지 못해 결국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와 당시 K리그 올스타전을 주최한 '더페스타'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사 잠정 보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더페스타 측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더페스타는 그라운드 주변에 해외 사설도박업체 광고를 노출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당한 바 있다. 또 경찰은 함께 고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링크의 '호날두 경기 비출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잠정 보류 의견과 관련, 올해 초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탈리아 측 자료가 와야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지만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다른 부분들까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만약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받게 되면 검찰에 넘긴 관련 자료를 다시 받아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호날두 선수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서 당초 홍보와 달리 경기를 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팬 등은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당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손흥민, 토트넘 훈련장 복귀…내일 프리시즌 시작

세 차례 연습경기 진행…EPL 9월12일 개막

손흥민(28)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훈련에 복귀하며 본격적인 프리시즌 준비에 나섰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트넘 훈련장에 복귀한 손흥민"이라는 글과 함께 손흥민이 훈련장에 나선 사진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EPL에서 11골 10도움으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21개)를 달성했다. 또 모든 대회에서도 18골 12도움으로 최다 공격포인트(30개)를 세웠다.

지난해 12월에는 번리전에서 70m 원더골을 터트려 EPL 올해의 골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2019~2020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28일 귀국해 국내에서 자가 격리를 포함한 짧은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지난 17일 영국으로 돌아갔다.

영국 복귀 후 손흥민은 현지시간으로 19일 토트넘 훈련장에 복귀하며 프리시즌을 대비했다.

2020~2021시즌 EPL은 9월12일 개막해 내년 5월2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시즌 6위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따낸 토트넘은 프리시즌 기간 3차례 평가전으로 컨디션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트넘은 22일 입스위치타운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레딩(28일), 버밍엄시티(29일)와 차례대로 붙는다.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프리시즌 매치는 홈페이지에서 유료 중계할 예정이다.

목포과학대, 대학배구 무안대회 우승

여대부 풀리그 3전 전승 우승

목포과학대(총장 이승훈) 배구팀이 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대회 아쉬운 준우승의 한을 풀었다.

목포과학대는 20일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 호남대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15-25, 25-20, 25-11, 25-20)로 승리를 거두고 대회 3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경남 고성에서 열린 고성대회에서 단국대에 패하며 아쉽게 2승 1패로 준우승을 차지한 목포과학대는 이번 무안대회에서 전승을 거두며 화끈하게 설욕했다.

목포과학대는 사실상 대회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1차전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3:1로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두 번째 경기인 우석대 또한 3-2로 물리치고 2승째를 기록했다.

우승까지 한 경기 남은 목포과학대는 호남대와의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회 우승과 함께 개인상의 겹경사도 누리게 됐다.

정진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에이스 한주은이 최우수선수상, 세터상에 박미소, 리베로상 심우경, 블로킹상 김은지, 임예본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개인상을 모두 휩쓰는 영예를 안았다.

목포과학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은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지난대회 아쉬운 준우승을 설욕하기 위해 무더위에도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 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시즌을 잘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B그룹에 속한 목포대학교 배구팀은 21일부터 지난대회에 이어 연속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프로축구 전북, 23일 상주전 입장 관중 25%→10% 축소

경기 당일엔 휴대용 손 소독제 배포 예정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현대와 FC서울 경기에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골을 성공시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전북 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관중석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은 23일 오후 6시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 상무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7라운드를 치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K리그 전체 구단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맹은 지난 14일부터 관중석의 25%까지 입장을 허용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서울-경기 지역 구단들을 중심으로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역인 충남아산, 대전하나시티즌행(이상 K리그2), 대구FC, 광주FC(이상 K리그1) 등까지 동참하면서 20일 오전까지 K리그1, 2부리그 22개 중 13개팀이 무관중 전환을 발표했다.

23일 상주전을 유관중으로 치르기로 한 전북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관중석 입장 인원을 25%(1만190명)에서 10%(4205명)로 축소했다.

전북은 입장 관중 축소와 함께 이날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를 나눠주기로 했다.